

아버지와 나 시리즈 8

- 성경, 내 길의 빛

<차례>

Chapter 1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Chapter 2 :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Chapter 3 : 성경은 형통케 하는 길을 보여 줍니다.

Chapter 4 : 성경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 ‘아버지와 나’ 시리즈를 발간하며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들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비밀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12가지 주제로 묶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 좋으신 나의 아버지

성령님 - 살리시는 영

예수님 - 구원의 이름

사탄의 영적전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기도 - 우리의 살 길

교회 - 세상의 소망

리더십 -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예배 - 설레이는 만남

선교 - 존재이유

사역 - 인생의 행복

성경 - 내 길의 빛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는 나의 동역자요, 동지요, 친구입니다.

나의 꿈, 그대 젊은이를 사랑합니다.

- 그대들의 영원한 친구 준석이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쓰다.

성경 - 내 길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 119:105)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인생을 형통케 하는 놀라운 지혜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 다음 글을 함께 읽읍시다. _____

현대인에게도 성경이 필요할까?

IMT2000으로 인터넷 제 2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성경이 과연 현대인들에게 필요할까? 성경이 과연 '현대인'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성경은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너무 신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스럽게 다뤄지는 것은 아닐까. 성경이 한 종교의 경전이기에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면 과연 성경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나 어투 모두 구세기의 산물인 것 같다. 지금의 세상은 포스트모던의 세계다.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촌스럽고 고집스럽게 느껴지는 세상이다.

그러나 과학을 의지하고, 과학적 발견에 경외심을 바쳐 온 현대인들은 오히려 극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과학적 사실만으로 인간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당과 점쟁이를 찾는다. 실존주의에 이어 포스트모던의 철학이 사상계를 지배하고, 이 사회는 화려해지는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빈곤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다. 놀라운 네트워킹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빈약함은 여전하며, 가치의 혼돈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이 사회에서 인간은 '효용성' 이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지만 이 시대의 지성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의 빛을 찾았으며 누리고 있다. 과연 성경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성경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이기에, 성경을 애독하며, 성경이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서 매 주일 선포되어지는가? 성경에는 이 혼란스런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함께 나눔시다

- 성경에 대한 추억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Chapter 1 -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 중요한 정도는 달라 집니다. 누구의 말인가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당신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 말씀읽기 1

디모데후서 3장 15-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나눔시다

◦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 묵상하기 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참고

감동이란?

구약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영적 존재로부터 받는 자극을 가리킵니다. 간혹 나쁜 의미(삼하 24:1, incite)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자극, 격려를 의미합니다. 삼손에 대하여(삿 13:25), 또는 고레스에 대하여(대하 36:22, 스 1:1), 예루살렘 귀환을 결의한 사람들에 대하여(스 1:5),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은 평상적인 일이 아닌데서,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는 것임을 뜻합니다.

신약에서는 데오프뉴스토스[thepneustos,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딤후 3:16), [데오스]와 [프네오](바람이 분다, 숨쉬다, to breathe)의 합성 형용사로서,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과 관련하여 1회 인용되어 있습니다. 벵후 1:21절을 읽어보세요.

☞ 묵상하기 2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 어떤 분이십니까?

나눔시다

◦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참고

어린시절의 성경책

미국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John Wanarmaker)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지금 나의 재산은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일 학교에 다니던 소년시절,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낡은 성경책입니다.”

그는 감회에 어린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빨간색 가죽에 윤이 흐르는 아주 맛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사던 날, 그는 그동안 돈을 모아 두었던 돼지 저금통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그 때 나는 저금한 돈을 다 써버렸다는 서운함 보다 내 성경책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 세상을 산 결과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삶의 올바른 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 먼저 도를 세우고 율법을 세우도록 하신 까닭은 바로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 말씀읽기 2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 묵상하기 2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살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당신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나는 20대에서 30대에 걸쳐서 대단히 오랜 요양생활을 했다. 그 때 같은 요양자에게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미우라는 “오늘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냅니다.”라고 편지를 써 보내 주었다. 이것은 참으로 멋진 선물이었다. 이사야서 40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는 나는 즉시 성경을 펴보았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미우라가 보내준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 평생 땅을 밟지 못할 것 같다고 반쯤 체념했던 나에게 이것은 실로 위대한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 그 후 2년이 지나고 3, 4년이 지나서 정말 자기 발로 땅 위에 섰을 때 나는 이 성구의 강한 힘을 새삼 깨달았다.

다음에 쓰는 말씀을 당신도 모쪼록 실패해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 격려했으면 좋겠다. “내가 네 허물을 백백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사 44:22)

다음 말씀도 병 가운데 있는 나를 격려해 준 말씀이다. “밤이 새도록 울며 슬픈 자도 아침에는 기뻐 노래하리라.” (시 30:5) 당시 나의 상태는 실로 “밤이면 밤이 새도록 울며 슬퍼함”에 맞는 나날이었고, 매일같이 미열이 나고 혈당이 나오고 편도선이 아파서 하루라도 몸도 마음도 밝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는 ‘새벽 없는 밤은 없다’고 생각하여 ‘날이 밝으면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으로 마음이 불타올랐다. 어떤 비참한 상태에서도 머지않아 기뻐 노래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때, 인간에게 이상한 힘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방팔방이 박혀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 때는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느새 자기 앞길에 가냘픈 빛이 보여진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강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다.

- 미우라 아야꼬,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 중에서

♣ 말씀읽기 1

에스겔 12장 21-28절 말씀을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비난합니까?

☞ 참고

말씀의 의미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실현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이미 행위적인 의미의 권능(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rb;D; (debar)]입니다. 이것은 [말한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지만, 또한 [사

건](민 3:16, 신 19:15), [일](창 24:33, 출 18:26)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언어 뿐 아니라,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다시 만들어지며, 심판되고, 혹은 축량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목상하기 2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눔시다

◦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읽기 2

히브리서 4장 11-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 목상하기 1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 목상하기 2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감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Chapter 3 - 성경은 형통케 하는 길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형통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성경은 그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 원리를 보여 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는 막힘이 없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 말씀읽기 1

시편 1편 1-6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덕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하나 하나를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 묵상하기 2

시냇가에 심겨진 울창한 나무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 나무의 건강함과 풍성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 묵상하기 3

가을 들판에 농부들이 키질을 하는 광경을 상상해 봅시다. 바람이 불 때 날아 가 버리는 겨와, 끝까지 남아서 포대에 모아지는 알곡, 당신의 인생은 둘 중 어느 쪽이었습니까?

☞ 참고

묵상이란?

성경에는 시편 1:2 여호수아서 1:8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hagah)'인데, '하가'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는 것처럼 단순히 침묵 속에 고요히 생각하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지저귀며, 말하며, 심지어는 '으르렁 거리다'라는 뜻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해 본다면 묵상이란 첫째, 본문을

읽으며, 둘째 그것을 씹어 먹듯이 계속 중얼거리며, 셋째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소화하며, 넷째, 그것을 널리 선포하며, 다섯째 깨달고 선포한 대로 살아 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따라서 묵상은 실천의 단계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읽기(Active Reading)이다.

나눔시다

- 당신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독특한 묵상 방법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게 된 유익이 있다면 역시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읽기 2

시편 119편 97-105절, 그리고 165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사람이 교육받은 정도나 살아온 연수에 상관없이 지혜로와 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할니까?

☞ 묵상하기 2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장애물을 피해 형통케 되는 데에는 무엇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눔시다

-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지혜를 얻게 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조언을 좇기보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원리대로 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우리 순원 기도제목 >

☞ Chapter 4 - 성경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따로 구별하여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행함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눅 11:28)

행함이 뒷받침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다음 본문을 묵상하십시오.

♣ 말씀읽기 1

신명기 28장 1-19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는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 묵상하기 2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나눔시다

◦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또한 축복과 저주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 읽을거리

다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올라왔을 때에는 밤이 깊어 있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역 광장을 막 빠져나가던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아침에 보았던 할아버지가 그 때까지도 온 몸을 오그린 채 쓰러져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가슴 속에선 무언가 불끈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행정기관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고 동시에 자신은 난처한 이 일에서 발뺌하며 도피하고 싶은 수많은 변명들이 마음 속에 오갔다. 그래도 일말의 신앙적 양심은 살아남아서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갔다. 악취를 풍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손뼉 엄두도 못 낸 채 그저 어정쩡하게 허리를 굽히고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건 어쩌면 내가 바라던 상태였는지 모른다. 발을 떼려고 할 때 등 뒤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니...”

깜짝 놀라 다시 발길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뒤돌아보았을 때 “아니, 아직 먹지 못했다. 일도 야. 너는 언제까지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 위에 눕혀 놓을 작정이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다. 순간적으로 성경에서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스쳐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이 나인 양 오버랩 되면서 스쳐지나갔다. 그리고 한 말씀이 떠올랐다.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 25:40)

- 최일도,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 말씀읽기 2

야고보서 2장 14-26절을 함께 읽으세요.

☞ 묵상하기 1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이 본문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 묵상하기 2

영혼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당신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눔시다

- 지난 주간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을 실천에 옮긴 일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이번 주간에 새롭게 도전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